

여수 거문도 해상 풍력발전 추진...어민 반발

산자부, 지난달 거문도 앞바다에 8MW급 발전기 36기 허가 수산단체 "어업 손실 1000억원 넘을 것...철회운동 펴겠다"

여수 거문도 인근 해상에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어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8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앞바다에 8MW급 발전기 36기를 설치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허가했다.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에 가시화되자 거문도 인근

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해온 어민들이 사업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 운동에 나섰다. 어민들은 대규모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조업 구역이 줄어들고 위판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기상악화 및 야간 어선 충돌 위험 등 삶의 터전

이 황폐해질 것이라며 풍력발전 설치를 반대했다. 특히 산자부 허가 이전에 3차례의 공식 문서를 발송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허가가 해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산협회 등 20여개 수산 단체를 대표한 사단법인 여수산업연합회는 지난 4월 여수 광평 해상풍력 설치 반대 의견을 여수시에 제출한 바 있다. 노평우 여수해상풍력반대대책위원장은 "삼산면 거문도와 광도는 황금어장으로 여수시 전체 어업 면적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며 "해상풍력발전이

설치될 경우 1000억원의 어업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허가에 이어 사실상 여수시의 개발허가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산자부가 해상풍력발전의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허가된 계획기 24개소의 풍력발전 사업은 어민과 어민단체, 지역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수달·삿·하늘다람쥐... 멸종위기종 서식 '동약산' 곡성군, 생태축 복원 추진

곡성군이 멸종위기종인 수달(사진), 삿, 하늘다람쥐, 꼬마잠자리 등의 서식이 확인된 동약산의 생태축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최근 곡성을 중의공원 일대 동약산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의공원 일대는 동약산과 섬진강을 연결하는 지점으로 멸종위기종인 수달, 삿, 하늘다람쥐, 꼬마잠자리 등이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이다. 곡성군은 생태통로, 생태숲, 생물 서식지 등을 복원하고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 사업을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과 연계해 생태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도시생태축 사업이 중요한 만큼 사업의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수행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선정했다. 완공 목표는 2022년 12월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생태적 복원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도시 중심부 녹지 확충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대응력을 높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순천시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성황

국가정원 밖 최초 도심정원...횡단보도 옆 쓰레기 투기장 정원 변신 눈길

순천만국가정원 밖에서 처음 열린 도심정원 축제인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순천시 곳곳에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제7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지난 19일 순천시 연향3지구 어린이공원에서 개막했다. '내게 ON 가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일반부 19개, 학생부 19개, 리뉴얼부 36개 등 총 74개 작품이 30일까지 순천 도심 전역에서 전시된다. 한평정원 작품 앞에서는 정원을 조성한 참가자들이 직접 해설하는 '도슨트 정원 투어'를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학생부 '안전4거리 정원'의 정암지킴이의 팀원 기영남(72)씨와 이은정(53)씨는 쓰레기 무단투기

가 이뤄졌던 현장에 직접 정원을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잦았던 횡단보도 인근 인도부지에 정원을 조성하면서 학교를 오가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연향3지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했다"면서 "이렇게 꿈을 펼쳐볼 기회가 있어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만학도의 열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6년 동안 국가정원 안에서 진행하던 한평정원 페스티벌 행사를 시 구역구역에서 함께 즐길 수 있게 준비했다"며 "시민 모두가 정원사가 되는 그날까지 순천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도심정원 축제인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순천시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이 '안전4거리 정원'에 대해 해설을 듣고 있다. <순천시 제공>

고흥군·안산시 우호교류 협약...행정·민간 교류 추진

고흥군과 경기도 안산시가 지난 20일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교류협력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고흥군과 안산시는 지난해 6월 농협의 사업 교류를 시작으로 상호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행정 분야 협력은 물론 다양한 민간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기근 고흥군수는 "두 지역이 행정·경제·문화·관광·체육·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자치의 동반



고흥군(조합장 강성태)과 순천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효승·김옥서·김경란)은 1회용품과 플라스틱 제로(0) 만들기를 위한 상호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협약에 따라 양측은 자원 재활을 위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것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위해 사업장의 일회용 플라스틱 예산을 줄여 다회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이 주최하는 사내 행사에서 1회용품을 쓰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1회용 플라스틱의 경우 생산에 5초, 사용에 5분,

"1회용품 제로" 순천농협·순천환경련 협약

순천농협(조합장 강성태)과 순천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효승·김옥서·김경란)은 1회용품과 플라스틱 제로(0) 만들기를 위한 상호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협약에 따라 양측은 자원 재활을 위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것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위해 사업장의 일회용 플라스틱 예산을 줄여 다회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이 주최하는 사내 행사에서 1회용품을 쓰지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1회용 플라스틱의 경우 생산에 5초, 사용에 5분,



분해에 500년이 소요돼 해양 및 자연 생태계 파괴, 미세먼지 극심, 온난화 등 피해로 이어진다. 양측은 사무실 1회용품(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전개, 종이 없는 회의 문화 조성, 우리 숲 보호, 분리수거 교육 실시 및 분리수거함 배치, 분리배출 실천 등 기업문화 만들기에도 힘을 기울인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정류장에 주소 생킨다

여수시 "긴급 상황 대처"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에

여수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해 정확한 위치 파악과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여수시는 육교승강기 10개소와 택시승강장 19개소, 지진옥외대피장소 48개소, 버스정류장 1268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하반기에는 소공원 23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올해 4월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6만1618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